

“소나무를 찾아 떠나는 테마여행”

1. 기획 목적

- 속리산을 대표하는 나무인 소나무에 대해 알아 보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소나무 중 하나인 정이품송과 관련된 속리산 유래에 대해 알아 보는 프로그램을 기획함으로써 속리산만의 특성화 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공원관리 직원의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함

2. 프로그램의 기획과 운영방법

- 대상자 : 어린이
- 계절 : 여름
- 운영코스 : 정이품송 앞~ 은구석공원
- 소요시간 : 1시간
- 참가인원 : 20명 내외
- 준비물
 - 해설자 : 해설 소품(솔방울 가지, 목공예 풀), 구급약
- 운영주체 : 직원, 자연환경안내원

3. 시나리오 구성요소

- 구연동화식의 접근성
- 알기쉽고 퀴즈식의 호기심 유발
- 시나리오를 통한 체험의 극대화
- 기념사진을 통한 국립공원과의 유대감과 추억만들어주기

시나리오

1. 만남과 인사하기(속리산국립공원안내도 앞)

안녕하세요? 이 무더운 여름날에 ‘속리산국립공원’을 찾아오신 어린이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소나무를 찾아 떠나는 테마여행”이란 제목의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된 속리산국립공원 자연환경안내원 ○○○입니다.

영어로는 에코가이드라는 명칭을 사용한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에코가이드~"

네,영어를 너무나도 잘하는군요~(웃음)

이 더운 여름날에도 여러분들과 함께 지낼수있어서 행복합니다.

이따가 나무그늘진곳에서 우리 즐겁게 무언가를 만들거랍니다.

무척 기대되지요?

자 그럼 우선 여러분들이 서있는 이곳 큰 소나무에 대해 이야기해볼까요?

오늘,여러분들과 함께 소나무에 대한 여러가지 이야기들과 체험들을 통해 속리산 국립공원에서의 또 다른 공부와 재미있는 체험놀이들을 통해 좋은 추억들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흔히 소나무를 우리민족을 대표하는 ‘우리나무’라고들 말하지요?

그렇다고 생각하는 어린이는 손 한번 들어주세요~

네, 어린이 여러분들 모두 알고계시군요~

맞아요,어느 해에 산림청에서 산림에 대한 의식조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람의 대부분은 소나무를 제일 좋아하고 2위가 은행나무 순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우리 남한 숲의 약 42%을 차지하고 있는 소나무는 우리나라에 없는 곳이 없을 정도랍니다.

우리나라 애국가에서도 소나무가 나올정도니 참 소중한 나무지요?

예전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기가 태어나면 솔가지를 끼워 대문에 금줄을 달았고, 소나무로 집을 지어 살면서, 생활용품과 땀감으로 썼으며, 솔잎으로 송편을 찌고, 먹거리나 약으로 쓰며 살다가 죽으면 소나무로 만든 관에 넣었으며 솔숲 근처에 묻혔답니다.

이렇듯 우리 민족은 솔과 함께 태어나 솔과 함께 더불어 살다가 솔과 함께 일생을 마감했다 하리만큼 소나무와 운명을 함께 하였습니다. 그래서 소나무를 우리 민족의 나무라 부릅니다.

자~~그럼 우리 민족의 나무인 소나무를 찾아 함께 여행을 떠나 볼까요?

2. 정이품송의 유래를 알아보아요.

어린이 여러분! 그거 아세요?

속리산을 대표하는 나무는 우리 소나무인 ‘정이품송’입니다. ‘정이품송’은 조선 7대 임금

인 세조가 단종을 폐위시키고 왕위에 오른 후 죽이고자 결심하게 된 어느 날 밤, 꿈에 단종의 어머니인 현덕왕후가 ‘네가 내 아들을 죽이려 하니 나도 네 아들을 죽이겠다’ 며 침을 뱉고 사라졌다고 합니다. 깜짝 놀라 깨어보니 침을 뱉은 자리가 굼기 시작하고 온몸으로 번졌다고 합니다. 백약을 써 보았지만 소용없자 부처의 힘으로 병을 고쳐보고자 명산대찰을 찾아 이 곳 속리산으로 들어오게 되는 데, 그때 연(가마)이 걸리지 않도록 소나무 가지를 들어 올려 주어서 무사히 이곳을 통과했고 법주사와 복천암 등에서 사흘밤낮을 국운번창을 기원하는 법회와 불공을 드린 결과 피부병이 씻은 듯이 나았다고 합니다.

또한 돌아가는 길엔 이 소나무 아래에서 큰비를 피했다고 하며 기특한 나무라 하여 ‘정이품’이란 벼슬을 내려 지금까지 전해집니다. 이런 연유로 ‘연걸이소나무(연송)이라고도 불렀답니다.정말로 정이품송은 대단한 소나무죠?

그럼 우리 어린이 친구들,소나무로 옛날엔 어떤 쓰임새로 우리들 곁에서 사용되었을까요?
한번 이야기 해볼까요?

네 ,맞아요~

옛날엔 엄마가 아기를 가졌을때 소나무 아래에서 태교를 하고 맛있는 장 담글 때 금줄에 숯, 고추, 백지, 솔가지 등을 끼워 넣었고 집을 지을 때 기둥이나 서까래용으로 썼답니다. 나무가 단단하고 잘 썩지 않아 벌레가 생기거나 갈라지지 않아 경복궁과 같은 궁궐이나 큰 절을 지을 때 썼던 소나무, 그러나 요즘은 궁궐이나 큰 절을 보수할 때 크고 질 좋은 소나무를 구할 수 없어 무척 안타깝답니다. 소나무로도 참 많은 일들을 했지요,

우리나라 숲의 대표적인 소나무로는 적송과 리기다소나무 그리고 잣나무 등이 있습니다. 소나무는 잎이 2개씩, 리기다소나무는 3개씩, 잣나무는 5개씩 모여 나오는 것으로 쉽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적송의 경우 수피가 붉은 색을 띠고, 리기다소나무는 수피에 멍아가 많은 것이 특징이래요.

흔히 우리가 보는 소나무는 줄기가 곧지 않고 구부러져 있는데, 우리나라의 소나무가 다 구부러진 것은 아닙니다. 경북 봉화, 울진, 삼척등지에서 자란 소나무는 쪽쪽 곧게 뻗으며 굽게 자란 것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재질이 좋은 소나무 목재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일제시대 일본사람들이 우수한 소나무들은 벌채해 일본으로 모조리 가져갔기 때문에 대부분 구부러진 소나무만이 우리 숲에 남게 된 것이라고 합니다.

3. 솔방울을 통한 자연물 만들기 체험

속리산국립공원의 대표 소나무인 정이품송의 사진들과
주변에 보이는 친구들의 사진들을 보면서 우리 저 쪽 은구석공원으로 이동해볼까요?
자,여러분을 뒤를 돌아 한번 계곡을 보세요 혹시 두루미나 원앙새가 있는지 한번 보세요~

이곳은 은구석공원이라는 테마공간입니다.
저기 공원 옆에 보면 계곡이 보이지요?

저 계곡에도 무수히 많은 생명체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선 동물원에서 볼 수 있는 원앙새를 비롯해,백로,왜가리 등등 매일 찾아와 먹이를 찾고 먹거나,사람들의 눈을 피해 휴식을 즐기기도 한답니다.

아침 7시부터 9시 조금 넘게까지 주로 원앙새와 왜가리가 많이 찾아옵니다.

원앙새는 천연기념물입니다.원앙새를 보면,화려한 색상과 수려한 외모를 가진 친구가 수컷이고,그냥 일반 새처럼 주변 환경과 비슷한 색상의 친구가 암컷이랍니다. 즉,암컷은 유전자가 매우 우수한 수컷을 결혼상대자로 찾기 때문에, 보다 화려하고 튼튼한 수컷을 선호합니다.

혹시 지금도 우리 직접 볼 수 있을지도 몰라요,그러니 조용조용 한번 뒤를돌아 계곡을 관찰해볼까요?

와~없군요,하지만 실망하지 마세요,어느순간에 슬쩍 날아와 우리 어린이들과 자연속에서 친구할지도 모르잖아요~

자 우리 그런 새들과 함께 놀수있는 친구들을 만들어볼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나무그늘아래에서

솔방울로 부엉이를 만들어 볼겁니다.

우선 땅에 떨어진 솔방울들을 하나 둘 주었지요?

그리고 떨어진 솔가지도 주었지요?

이제 이 간단한 재료로 우리 살아있는 부엉이를 만들어볼까요?

솔방울로 부엉이 만들기 방법

(만드는 순서 사진 첨부)

솔방울 하나는 얼굴,솔방울 하나는 몸통으로 사용되며,부엉이 눈은 씨앗을 통해 붙이기도 하고, 솔방울 솔을 통해 만들기도합니다.

솔방울에 작은 가지들을 그냥 꺾고 눈을 만들면 거미도됩니다.

다양한 만들기 방법으로 직접 어린이들에게 자연물로 만들기 체험으로 추억을 만들어줍니다.

자귀나무(공과)

자,우리친구들 귀신이야기 하나 들려줄까요?

말잘듣는친구는 안무섭고,말 잘안듣는 친구는 무서울겁니다.

우리 어린이 친구들,

혹시 초여름에 짙은 분홍 실을 부챗살처럼 펼쳐놓은 듯한 꽃을 본적 있나요?

그것은 바로 자귀나무인데요... ‘자는 게 귀신같다’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합니다.

어때요? 무서운 나무지요?

하나도 안무섭다구요?

(웃음)

일부 지방에서 소가 잘 먹는다 해서 '소밥나무', '소쌀나무'라고도 부른답니다.

이 자귀나무는 잠자는 운동이 특기인 나무인데요...해가 있는 낮에는 잎이 떨어졌다가 긴 긴 밤에는 서로 마주보기로 붙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엄마,아빠처럼 항상 서로 사랑한다고해요~

또 겨울이 되면 콩꼬투리처럼 생긴 긴 열매가 다닥다닥 붙어 수없이 달리는데 세찬 바람에 부딪쳐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시끄럽답니다.신기하지요?

그런데 자귀나무는 낮에는 잎이 떨어져 있다가 밤이면 마주 붙는 것일까요?

혹시 아는 친구 손들어보세요!~

우선 낮에서 광합성을 해야 하므로 최대한 잎의 면적이 넓은 것이 유리하고 밤이 되면 자연 재해나 초식동물들의 공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대비해 최대한 움추려 방어태세를 갖추는 것이라고 하네요...

이팝나무

자 우리 한번 옛날 이야기의 여행을 떠나볼까요?

어떤 나무에 대한 이야기랍니다.

바로 이팝나무에 대한 옛날 이야기를 구연동화로 잠깐 들어볼까요?

이 나무는 5월 5~6일 경이면 흰 꽃이 흐드러지게 핍니다.

꽃이 피는 시기가 양력으로 24절기의 입하와 시기적으로 일치하기 때문에 입하목(入夏木)이란 이름을 얻었습니다.

한자로 입하목이,걸쳐걸쳐서 이팝나무가 된 것입니다.

이팝이란 이밥, 즉 조선시대 이씨성을 가진 왕이 내리는 밥이라 하여 이밥, 즉 이팝인 것입니다.

그럼,우리 어린이 친구들중에 이씨성을 가진 친구들 손 한번들어보세요!~

배고픔으로 고생하던 참 재미있는 나무지요?

이팝나무는 수형이 단정하고 흰 쌀밥 같은 꽃이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가로수나 정원수로 많이 심고 있습니다. 실제로 2002년 경주시는 가로수의 일부를 우리 고유수종인 이팝나무로 바꾸었으며 대전광역시 유성구에도 가로수로 이팝나무를 심어 벚꽃이 지고 난 후에도 많은 관광객을 불러 모으고 있다고 합니다.

네,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보낸 시간들이 아쉽게 마무리해야할 시간이 왔습니다.

우리 어린이 친구들과 함께 소나무와 여러 야생화를 체험하면서 무척 즐거운 시간들이었습

니다.

항상 건강하고 밝게 웃으며 속리산국립공원에서 보낸 시간들을 기억해주세요.
그럼 우리 어린이 친구들,
단체사진을 촬영하고 우리 그 기념으로 추억들을 간직한채 또 만나요~~~